



## 목숨 담보하고 10년, 30년간 민통선 누빈 두 사람의 정신

《민통선 평화기행》 이시우 지음/창작과비평사/340쪽/값 12,000원

《할아버지, 언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함광복 지음/eASTWARD/344쪽/값 11,000원

이시우 씨와 함광복 씨는 남북 이데올로기의 접경지대인 민통선을 손금 보듯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낸 각각의 책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6·25 전쟁 이후, 정확하게는 정전협정 이후 형성된 민간인통행금지선 안쪽은 그 통행금지의 원인 이상으로 많은 신비성과 역사성을 안고 있는 공간이다.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온전히 보전된 공간이며, 역사의 아픔을 가장 많이 갖고 사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그 동안 민통선에 대한 저작이 드물었던 것은 이러한 한계 탓이었는데 이시우 씨와 함광복 씨는 그들 나름의 철학과 관심으로 민통선의 선繚를 건너 아무나 낼 수 없는 하나의 아우라를 독자에게 내밀었다.

《민통선 평화기행》을 낸 이시우 씨는 기본적으로 평화운동가다. 이럴 때 평화주의자와 평화운동가는 구별된다. 그에게 붙여진 평화운동가라는 이름에는 '몸을 던져 지켜내는' 이라는 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책을 내기 위해서도 자신의 몸을 많이 혹사시켰다. 혼한 안보 관광 답사 코스를 일별한 게 아니라 군인들도 지키지 않고, 현지인들도 지리를 잘 모르는 민통선 안쪽의 허접한 곳(?)까지 죄다 찾아다닌 것이다. 그 중의 한군데인 철원과 연천 사이의 페터널 이야기는 이 책이 담긴 역사의식과 사유의 진폭에 감동을 가져온다. 특히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



며 사진작업을 병행함으로써 얻은 빛과 사물의 상관 관계, 그 우물에서 길어낸 관념의 터치는 뛰어난 산문의 경지를 보이면서 허투루 기행 에세이를 써온 사람들에게 각성의 기저로 작용하고도 남는다. 그는 한때 사진 전문가였으나 광주항쟁 때 '사진하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판단, 사진을 놓아 버린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진기를 다시 들었고, 자신의 몸뚱이와 카메라를 민통선 지역의 피사체들에게 복무시켰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의 사진들은 사실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예술성을 확실하게 담보한, 필자가 그동안 보아온 민통선 사진 중 가장 견고하고 부드러운 프레임을 갖추고 있다. 그럼으로써 고정된 뷰 파인더를 버리고 다양한 셔터를 작동시킨 그의 눈길 때문에 민통선 지역의 피사체들은 50년 만에 새로운 풍경, 새로운 인식의 언어로 이 책에서 살아 숨쉰다. 이런 판단 아래 필자는 그가 쓴 책 속에 민통선 지역 어느 어느 곳이 거론되고 있다는 식의 친절ان 리뷰를 생각한다. 때로 텍스트에 대한 친절은 간섭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니와 저자의 글과 사진을 훼손할 수도 있는 법이다. 그의 글과 사진에 대한 애정을 표하면서 그의 평화운동과 함께 민통선지역이 이데올로기의 상징에서 해금되기를 바라는 것은 필자만의 희망이 아닐 것이다.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는 지방신문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30년 가까이 민통선 지역과 DMZ를 누벼온 저자의 리얼리티로 충만한 책이다. 이 책은 지난해 11월 출간돼 <출판저널> 재창간호에 리뷰 기사가 실릴 예정이었으나 지면 사정으로 누락된 사연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묵은 책도 리뷰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출판저널>은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에 진 빚을 갚으려 한다.

이 책의 덕목은 리얼리티에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DMZ의 사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저자가 군인들과 호형호제해 가며 민통선의 30년 사계와 베타 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또한 중앙 일간지 기자들이 6·25특집 기사로 다루기 위해 한나절 다녀갈 때 그는 몇 날 며칠이고 그 안에서 자고 먹고 했기 때문에 독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의 책은 그런 점에서 이시우 씨의 사실성과 대등한 경지를 이루고 있으나 입담에서는 한참 왁자하여 땅과 사람과 이데올로기의 두런거림이 느껴진다. 이시우 씨의 냉철함과 사유의 깊이가 결합된 글·사진과 우열의 관계를 떠나 출판공간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돼야 마땅하다.

《할아버지, 연어를 따라오면 한국입니다》 역시 《민통선 평화기행》과 마찬가지로 155마일에 걸친 민통선과 DMZ를 달리면서 전쟁이데올로기와 사람살이와 풀과 총과 철조망에 대해 얘기한다. 그 행로 중간중간에 어떤 얘기토막들이 있는지 역시 이 리뷰에서는 생략한다. 그보다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시우 씨와 함광복 씨의 취재길이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담보한 것이었으며, 그 길들은 저자들이 목숨을 담보하고서라도 10년, 30년을 투자해야 했던 한국역사의 상징물이었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모든 작업은 결코 헤실헤실한 결실을 맺지 않는 법이거니와 그것은 이들 두 저작자의 작업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두 권의 책을 덮으면서 이들 두 저자가 서로의 눈길을 간섭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줄 또 다른 저작물을 공동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간다. 부연하자면, 좋은 기행 저작은 기행에 나선 사람의 정신과 운동화에서 나온다. ■

